

윤활소식

호남정유(주) 최대규모 인사 단행

호남정유(주) (대표 : 허동수)는 지난 2월 1일 과장급 이상 부장급 이하 205명을 승진시키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관리자급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특히 공장 기술직 근로자인 박관수 기장을 첫 기성으로 선임하는 한편 11명을 발탁해 승진시켰다. 또 선임부장제를 신설, 24명을 선임하는 등 승급기회를 확대해 중간 관리자층의 전문업무 범위를 넓혔다.

이번 인사로 중간관리자급은 부장 136명, 차장 76명, 과장 310명으로 관리자급이 모두 522명으로 전 직원 2,314명 중 22.6%를 차지하게 됐다.

팀제가 처음 도입될 때 일부에서는 팀제가 조직 슬럼화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우려도 없지 않았으나, 이번 인사로 이러한 우려를 일소하고 오히려 팀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중간 계층의 승진기회가 확대되고 이들의 전문적인 업무지식을 활용하는 기회가 넓어졌다.

또한 정착단계에 들어선 기능별 팀제 하에 단행된 이번 인사는 철저히 능력과 성과에 근거한 승진인사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한편 이번 인사단행에 승진한 윤활유관련 인사는 아래와 같다.

❖ 승진인사 ❖

손영기	윤활유영업팀	팀장/선임부장
김용대	윤활유제품팀	팀장/선임부장
김용식	윤활유관리팀	부장
이재동	윤활유영업팀	차장
유남선	"	과장
최정기	"	"
이영익	윤활유관리팀	"
조태범	"	"
이두상	윤활유제품팀	"

(주)유공의 최첨단 潤滑基油 생산공정,
미국 특허권 획득

(주)유공 (대표 : 조규향)에서 세계최초로 독자개발한 최첨단 윤활기유 생산공정(UKO공정 기술)이 금번 미국특허청(USPTO)으로부터 특허를 획득했다. 이번에 획득한 윤활기유 생산기술은 순환형증질유 분해시설(증질유분을 경질유분으로 전환하는 시설)에서 경질유로 전환되지 못한 부산물인 未轉換油를 초고점도지수(VHVI)潤滑基油로 만드는 공정으로, 특허선진국인 미국으로부터 특허를 획득함으로써 앞으로 20년간 미국 내에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초고점도지수 윤활기유 생산공정은 엑슨(EXXON), 비피프랑스(BP FRANCE)社 등 소수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나, 이들 공정은 악스를 이용해 기유를 만들거나 증질유 분해시설에서 나온 미전환유를 윤활기유 공장으로 가져와 특별 처리하여 기유를 만드는 것으로 투자비, 운전비가 비싸다. 이에 반해 유공의 윤활기유 생산공정은 증질유 분해시설에서 나온 미전환유를 윤활기유 공장으로 별도 처리없이 연속공정으로 품질이 우수한 윤활기유를 생산, 투자비와 운전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주)유공 울산공장 윤활유생산부 박봉희 계장
전국 분임활동 수기 공모 당선

(주)유공의 울산공장 윤활유생산부에 근무하는 박봉희계장이 한국표준협회에서 주관한 200만원 고교 제18회 전국 분임활동 수기공모에 출품한 「달리는 사람만이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다」가 전국에서 출품된 24작품중 영예의 최고상에 선정되었다.

윤활소식

본 작품은 박봉희계장이 그동안 분임활동을 하면서 겪은 수많은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까지의 개인적인 노력, 동료의 협조, 상사의 지원사항 등을 수기로 작성한 것이다. 한국표준협회에서 77년도에 시작하여 그동안 수많은 당선작과 가작 등을 배출한 본 제도는 분임활동에 관련된 수기공모로는 가장 오랜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고 있다.

이수화학공업(주) 상호 변경

이수화학공업(주) (대표 : 김찬욱)는 지난 3월 15일부터 상호를 이수화학(주)로 변경하였다.

현대정유(주) 옥계저유소 완공

현대정유(주) (대표 : 정동혁)는 원활한 제품수송을 위해 전국적으로 건설하고 있는 저유소중 첫번째로 옥계저유소가 완공되어 제품출하를 시작했다.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에 위치하고 있는 옥계저유소는 지난 95년 4월에 착공하여 거의 11개월 만에 완공되었는데, 4천 3백여평의 부지 위에 총 7기의 저장탱크가 건설되었다. 휘발유와 등유, 경유, 벙커유등 총 십 2만 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각 제품별 저장탱크를 갖추고 있는 것은 물론, 5,000DWT급 수송선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시설도 갖추고 있다.

지난 3월 7일 '주양호'가 처음으로 제품을 입하했고, 11일부터는 상업용 유류에 대한 첫입하를 시작한 옥계주유소는 강원도를 비롯한 영동지역내의 계열주유소에 보다 신속하게 제품을 수송 할 있게 되었다.

한국석유유통협회 사무실 이전

한국석유유통협회 (회장 : 안상인)는 4월 29일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 우편번호 : 135-080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7-12
(서울빌딩 9층)
- 전화번호 : 555-0211
- F A X : 555-7982

